



엠폭스(원숭이두창) 감염병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은 최근 국내의 엠폭스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였고, 4.18.(화) 금일부터 **위기경보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엠폭스는 제2급 감염병으로 전 세계적 발생은 감소 추세이나, 일본, 대만 등 인접국가의 발생 확산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최근 1주 내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이전보다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엠폭스에 대한 안내를 다음과 같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
감염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부병변 부산물) 감염된 동물·사람의 혈액, 체액, 피-부, 점막병변과의 직·간접 접촉 (매개물) 감염환자의 체액, 병변이 묻은 매개체(린넨, 의복 등) 접촉을 통한 전파 (비말) 코, 구강, 인두, 점막, 폐포에 있는 감염비말에 의한 사람간 직접 전파 (공기)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가 가능하나 흔하지 않음
잠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5~21일(평균 6~13일)
주요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피로, 근육통 및 요통, 두통, 호흡기 증상(인후통, 코막힘, 기침 등)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보통 1~4일 후에 발진 증상이 나타남 발진은 얼굴, 입, 손, 발, 가슴, 항문생식기 근처 등에서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진은 대체로 반점부터 시작하여 여러 단계로(반점→구진→수포(물집)→농포(고름)→가피(딱지))로 진행되며 초기에는 뾰루지나 물집처럼 보일 수 있으며, 통증과 가려움증 동반하기도 함 * 임상증상이 비슷한 수두, 홍역, 옴, 매독 등과 감별 진단 중요함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체(피부병변액, 피부병변조직, 가피, 구인두도말, 혈액 등)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 자연치료 또는 대증치료 필요시,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테코비리마트) 치료 시행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방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세대 두창 백신은 효과성이 입증되어 FDA(미국)과 EMA(유럽)에서 두창과 엠폭스 백신으로 3세대 백신을 승인한 바 있음



엠펙스 예방수칙

✓ **손 씻기 등 개인적인 위생 수칙 준수**

* 의심증상자 접촉 후 비누와 물 사용 손씻기 또는 알코올 성분 손 소독제 사용

✓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삼가**

✓ **엠펙스 의심증상자 피부병변(발진이나 딱지 등) 접촉 삼가**

✓ **엠펙스 의심증상자 사용 물품(침구류, 수건, 의복, 세면대 등)접촉 삼가**

✓ **엠펙스 의심증상자와 부득이한 접촉 시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 **아프거나 죽은 동물과의 직접 접촉 및 사용 물품 주의**

✓ **아프리카 수입 야생동물 및 반려동물 접촉 주의**



엠펙스 의심증상(발진 등) 발생 시 행동요령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즉시 신고하여 방역 당국의 조치사항 안내에 따름**

✓ **엠펙스 진단 전까지 동거인을 비롯한 주위사람들과의 접촉 삼가**

* 침구, 식기, 컵 등 물품을 별도로 사용하고 가능하면 생활공간을 분리

✓ **철저한 손위생 및 가족, 동거인 등 보호하기 위해 개인보호구 사용**

* 피부병변을 긴 소매 및 바지 등으로 감싸 노출 최소화, 마스크 착용, 일회용 장갑 등

✓ **의심증상자의 쓰레기 및 침구는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

* 확진되면 쓰레기는 폐기물로 별도 분리 배출하고 침구도 별도 세탁 시행

✓ **애완동물을 포함한 기타 동물과의 접촉 삼가**

엠펙스
의심증상
발생 시
행동요령

자료출처:질병관리청

2023. 4. 18.

전 북 체 육 중 고 등 학 교 장